

기아차 '레이 EV'



르노삼성 'SM3 Z.E.'



기아차 '쏘울 EV'



한국GM '스파크 EV'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BMW i3



닛산 '리프'



쉐보레 '볼트'EV'



르노삼성 '트위지'



최고속도·배터리 성능 '아이오닉' 1위...급속충전 '스파크' 최고

지금 살 수 있는 전기 승용차는?

전기차 1만대 돌파...정부 지원 적극
한 번 충전에 최장 383km까지 주행
볼트·트위지 내년 상반기 출시 주목

국내 전기자동차(EV) 누적 보급 대수가 1만대를 돌파했다.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6년만이다.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주행거리가 80~120km 내외에 불과한 1세대 전기차들이 초기 시장을 형성했다면, 내년에는 150~300km를 넘나드는 2세대 전기차들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계기로 향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소를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급속충전소의 경우 12월 말까지 정부가 491곳, 민간이 259곳 등 총 750곳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유소 대비 약 14% 수준인 1713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 번 충전에 얼마나 갈까?” 전기차 차종별 특징

현재 국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구입 가능한 전기 승용차는 총 7종이다. 그 중 가장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국내 최장 1회 충전 주행 거리인 191km(도심 206km/고속도로 173km)를 자랑한다. 공인 복합 연비 수치상으로는 서울에서 대전(190km), 평창(184km)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다. 시내 주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중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의 시대를 연 차종이다. 파워도 충분하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최고출력은 120마력, 최대토크는 30kgf·m이다. 시동을 켜고 출발과 동시에 최대토크가 발휘돼 디젤차를 능가하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다. 통합주행모드 시스템을 적용해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

기아차 레이 EV는 1회 충전을 통해 최대 9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시 25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 소요된다. 최대출력 68마력, 최대토크 17kg·m의 성능을 낸다. 0km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시간은 15.9초가 소요된다.

2016년 전기차 보급 차종(승용차)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기아	닛산	현대
차량명	RAY	SM3	SPARK	i3	SOUL	LEAF	아이오닉
승차인원	4인 승용	5인 승용	4인 승용	4인 승용	5인 승용	5인 승용	5인 승용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165km/h
주행거리(상온)	91km	135km	128km	132km	148km	132km	191km
주행거리(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155km
충전시간(완속)	6시간	3~4시간	6~8시간	3~5시간	4~5시간	4~5시간	4~5시간
충전시간(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30분	25분
배터리	16.4kWh	26.6kWh	18.3kWh	21.3kWh	27kWh	24kWh	28kWh
배터리	6년	7년	8년	8년	10년	5년	10년
보증기간	12만km	14만km	16만km	10만km	16만km	10만km	20만km
할인후 가격 (만원)	3500	3790	3840	5650	4000	4340	4000
보조금		~4100		~6350		~4930	~4300

기아차 쏘울 EV는 1회 충전을 통해 1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시 24분, 완속 충전시 4시간 20분으로 레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성능은 레이보다 앞선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11.2초 이내며 최고속도는 145km/h, 최대출력 111마력, 최대토크 29kg·m다.

르노삼성 SM3 Z.E.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35km다. 급속 충전시 30분,

완속 충전시 4시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11.5초이며 최고속도는 135km/h, 최대출력 95마력, 최대토크 23kg·m다.

한국지엠의 스파크 EV의 주행거리는 128km다. 급속 충전시 20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최대출력 143마력과 최대토크 48.2kg·m를 발휘한다.

BMW i3는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파워를 낸다. 주행거리는 132km, 시속 100km/h까지는 7.2초가 걸린다. 큰 차체를 지녔지만 신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차체를 제작해 경량화를 이뤘다. 공차 중량은 1300kg에 불과하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인 닛산 리프는 한번 충전으로 132km를 달릴 수 있다. 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80%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가정에서는 6.6kW에서 4시간 정도면 충전할 수 있다. 리프에 장착된 전기모터는 최고출력 109마력, 최대토크 24.9kg·m의 힘을 발휘한다. 가솔린 준중형급의 출력이다.

●쉐보레 볼트EV·르노삼성 트위지 내년 출시 '전기차 시장 판도 바꾼다'

쉐보레는 장거리 주행 전기차인 볼트(Bolt) EV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볼트 EV가 주목받는 이유는 혁신적인 주행거리 때문이다. 이미 환경부로부터 383.17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추가 충전없이 주행이 가능하

다. GM의 최신 전기차 개발 기술과 LG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볼트 EV는 200마력에 달하는 최고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대폭 강화한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도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트위지 카고모델의 경우 최대 180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트위지는 에어백,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륜차 대비 월등한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 덕에 우천, 폭설 등 악천후에서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인증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며 가격과 출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금융

월세도 공과금도 이젠 카드로 결제하세요

5개 카드사 '다방 페이' 서비스 제휴 협약
주택 임대료·배달우유 결제 등 영역 확대

‘현금 지출을 대체하라.’

카드업계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매달 현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요금을 카드 결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 기존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넘어, 월세 및 생활 밀착형 대금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우선 월세 납부 시장 공략이 눈에 띈다. 신한·삼성·하나·BC·롯데카드가 부동산O2O 플랫폼 ‘다방’과 손을 잡고 ‘다방페이’를 통해 월세 자동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방페이’는 임차인이 플랫폼에 임대차계약서와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임대 기간 월세가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5개 카드사는 ‘다방페이’ 사용 고객에게 월세 할인과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측은 “1인 가구가 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는 추세에서 월세 카드납부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5개 카드사에



박두환 롯데카드 본부장, 황원섭 신한카드 본부장,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다방’ 전속모델 해리, 위수복 삼성카드 상무, 장길동 BC카드 본부장, 홍필재 하나카드 본부장(왼쪽부터)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스테이션3

모두 적용되면 전국 카드 사용자의 60% 이상이 다방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과 협업을 맺는 경우도 있다. 신한·우리카드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임대주택 66만세대에 임대료 카드 자동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주택도시공사(SH)와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18만7000개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은 19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임대료를 신한·우리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현금 결제 시장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전자결제업체 갤럭시사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우유 결제 등 갤럭시사이커뮤니케이션즈가 보유한 생활 밀착형 네트워크 망에서 대금 납부 수단 중 하나로 KB국민카드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정기적인 요금 납부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매출 창출원이라는 판단에서다. 매달 거래가 생기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인 데다, 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각종 부가상품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도 한몫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현금성 시장을 개척하고 고정 고객을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각종 공과금에 이어 임대료까지 기존 현금으로 거래되던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iaj@donga.com



KB국민카드 임직원 및 트와이스 멤버들이 '행복한 KB산타마을 선물공장'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산타마을 선물공장' 행사

KB국민카드는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에서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KB산타마을 선물공장' 행사를 열었다. 화용품·도서·과자·블록 완구 등이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500개를 제작해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을 통해 주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KB국민카드 측은 “선물 상자를 통해 나눔의 온기가 전달돼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카드, 2017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우리카드는 최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2017년 대학입시설명회'를 열었다. 1000여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대학입시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체감케 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서서 '2017 대입전략으로 대학을 바꿀까'라는 주제로 수능 응시자 현황 및 성적분석, 지원전략 등을 다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